

責任限度額에 대하여 1976년 협약은 事故主義와 함께 金額責任主義를 채택하고 해난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피해규모의 거대화 등에 발맞추어 책임한도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고, 최근의 1996년의 개정의정과 유류오염손해와 관련한 2000년 개정서(amendment)는 책임한도액을 대폭 상향하여 피해자보호에 한층 진일보하였다.

1976년 협약을 수용한 우리상법도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責任限度額의 算定에 있어 遞減方式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형선박은 상대적으로 책임한도액이 높고, 대형선박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불합리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책임제한의 배제사유로 들고 있는 '고의' 또는 '무모하게'라는 표현을 '故意'로 단일개념화해야 한다.

셋째,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는 船舶所有者 중심에서 벗어나 海事債權 전반을 유기적으로 규율하고 채권자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해상기업의 활동보호를 위하여 책임제한대상채권을 넓게 인정하되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保障契約 締結強制制度 또는 선주책임한도액까지의 強制保險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책임제한제도가 채권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船舶所有者 등의 배상능력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거액 損害賠償의 경우에만 責任制限을 허용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1. 한국 중소기업의 대 중국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무역학과 장운정
지도교수 유일선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진출시킬 상품, 진출할 시장 그리고 진입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진출시킬 상품이나 진출시장을 선정한 다음 진입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입방식의 결정에 대한 절대적 패턴은 없고 진출시킬 제품 또는 진출대상 시장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된다.

1980년 후반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열렸다. 중국

은 1978년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한 후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연평균 9%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직접투자를 끌어들이는 견인 요인(pull factor)이다.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도전받고 있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로 전 세계의 기업들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의 블록화와 통상마찰도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1988년부터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원가상승 압박과 제조업부문의 인력부족, 고금리, 고물류비용,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 빈번한 노사분규 등의 국내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축인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해외투자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고 저렴한 임금과 넓은 시장을 갖는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한국에서 대중국 직접투자로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이다.

한국 기업의 대중직접투자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뒤늦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1992년 8월 한 중 수교를 시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2003년 12월 말 현재 대중국 투자건수 누계는 순투자기준으로 8,654건이고 금액으로 약 76.2억에 달하고 있다. 이는 중국투자가 한국 해외직접투자 총건수인 19,071건의 약 45.4%로 1위, 전체 순투자금액(약 436.7억달러)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주된 투자대상국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순투자는 6,298건으로 전체 중국투자건수의 72.8%를 차지하고 있고, 순투자금액은 약 30억달러로 전체 중국투자금액의 39.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철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신고된 금액이 2억 8,000만달러로 전체 청산금액 누계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한해 만 발생한 청산 및 철수한 금액이 1억 1,300만 달러로 3년간 총 청산 및 철수금액의 누계는 약 3억 7,000만달러로 향후 철수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즉 한국은 대중국 직접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투자실패로 인해 청산 및 철수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왜 한국기업이 중국에 대해서 직접투자를 많이 하면서도 미국과 일본기업들과는 달리 청산 및 철수되는 기업들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대중국 직접투자에 관한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여기서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주요특징(stylized facts)를 정리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대중국 직접투자와 청산기업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

먼저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기업들의 대

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된 직접투자이론을 통해서 앞서 정리된 주요 특징들이 설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앞서 정리된 주요특징과 기존 직접투자이론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한국중소기업들이 직접투자도 많이 하면서 또한 실패도 많이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한다. 이것을 통해 한국중소기업은 과대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연구구성

본 논문의 제1장은 서론으로 논문의 연구목적과 방법 및 구성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기존문헌을 정리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통계자료를 통해서 한국기업의 대중국의 직접투자현황을 업종별, 지역별, 투자규모별, 소유지분별 등으로 살펴보고 특징들을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정리된 한국중소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주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청산 및 철수기업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앞서 제시된 모형의 경제적 함의에 대해서 입증한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12. 일본 수산물 시장에서 한·중 수산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무역학과 유효승
지도교수 나호수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수산물을 선호하고,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소비 국가이다. 또한 일본은 소비하는 수산물의 절반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일본인들의 수산물에 대한 선호체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시장 개방화 추세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을 낮출 수밖에 없어 일본 수산물 시장의 진입조건은 예전과 비교해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 태국 등과 기술력을 앞세운 미국 등 일본 수산물 시장에서의 경쟁은 예전보다 훨씬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 수산물 시장의 경쟁은 훨씬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산물의 가장 큰 경쟁 상대국